제9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단윤진

1.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국에서 출간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경학사상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위의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 후보지를 살펴본 결과 2021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경학 관련 논문은 총 52편으로 학위논문 2편(석사 1편, 박사 1편), 일반 논문은 50편이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논문은 조선 유학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외의 논문도 다소 포함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다. 1)권근(양촌, 1352~1409), 2)정조대왕(홍재, 조선 22대 왕, 1752~1800), 3)이황(퇴계, 1502~1571), 4)이익(성호, 1681~1763), 5)윤동규(소남, 1695~1773) 6)정약용(다산, 1762~1836), 7)정국채(조선후기?~?), 8)전우(간재, 1841~1922) 등으로 살펴보고 그 외의 유학자들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1)『대학』, 2)『논어』, 3)『맹자』, 4)『중용』, 5)『역학』, 6)『시경』, 7)『서경』, 8)『춘추』, 9)『예기』 및 『악기』, 10)사서 및 경서, 11)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여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

망을 조망해 보았다.

먼저 2021년 한국경학사상 관련 논문의 총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고윤숙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수양론(修養論)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2	길태은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공자학. 43	한국공자학회
3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	동양학. 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4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김서윤	正祖의 『經史講義』를 통해 본 錢時의 「洪範」해석	중국학. 76	대한중국학회
6	김성재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지적 고찰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7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 악기론의 음악실제상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70	한국국악학회
8	김수경	석정 이정직의 『시경』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 『시경일과(詩經日課)』 삼권(三卷)의 분석을 더하여	대동문화연구.11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9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의(含意)	퇴계학논총. 38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10	김익수	고구려의 경학사상과 인성교육정책	한국의 청소년 문화. 38	한국청소년문화학회
11	김종수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의 학문세계의 대체와 학적 담론	인문학연구. 35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2	김종수	향유(鄕儒)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사서경학(四書經學)	동방문화와 사상. 10	동방문화 대학원 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3	김종수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춘추(春秋)』 연찬과 우암학(尤菴學) 계승	포은학연구. 27	포은학회

14	노윤숙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문고전연구. 42	한국한문고전학회
15	박종배	퇴계와 율곡의 경서 석의 및 언해의 교육사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31	교육사학회
16	박종천	가장본家藏本 『춘추고징春秋考徵』과 『민보의民堡議』의 문헌적 검토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 문화재단
17	박찬호	다산의 격치육조설(格致六條說) 연구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8	배제성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 — 『맹자』「생지위성장」과 『중용』 '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19	서근식	퇴계 이황의 『계몽전의(啓蒙傳疑)』에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의 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105	동양철학연구회
20	서근식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구	민족문화. 58	한국고전번역원
21	서근식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역학사상 연구	동양철학연구.108	동양철학연구회
22	석승징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춘추설(春秋說)」 연구	동양학.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3	신주연	『논어』 '북신(北辰)과 뭇별(衆星)'의 비유를 통해 본 정약용의 유위론	동양철학연구.108	동양철학연구회
24	신재식	峿堂 李象秀의 『論語』 해석과 朱子學	동양한문학연구. 58	동양한문학회
25	엄연석	여헌 역학사상의 경위설과 분합론의 도덕실천적 의미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회
26	오보라	서피(西陂) 유희(柳僖)의 『중용장구보설(中庸章句補說)』 연구 — 구조 분석 특징과 主氣的 학설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27	유민정	주희(朱熹)와 이황(李滉)의 수사학적(修辭學的) 『논어(論語)』 해석(解釋)	퇴계학보. 149	퇴계학연구원
28	윤상수	『서천견록』을 통해 본 권근의 서경관 : 근엄(謹嚴)과 흠(欽)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9	윤석호	『맹자(孟子)』를 척도로 본 조선후기 공전(公田) 담론의 경세학적 층차	학림. 48	연세사학연구회

30	윤석호	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법(古法)탐구와의 연동(連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1	이경훈	木山 李基敬 『東儒經說』의 書誌的 考察	전북학연구. 3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32	이선경	간재 전우의 역학관 시론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33	이영준	정조(正祖)의 『사서대전(四書大全)』에 관한 비판적 인식에 대하여 — 『사서집석(四書輯釋)』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4	이익환	훈민정음과 가림토문자의 제자制字 및 체계體系에 관한 역易학적 분석 검토	세계환단학회지. 8—1	세계환단학회
35	인정현	이산의 간괘(艮卦) 이해	시대와 철학. 3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36	임귀남	고산 윤선도 東詩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47	한국시가문화학회
37	임재규	권근(權近)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에 나타난 상수학적 방법론 : 오징(吳澄)의 『역찬언(易纂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38	전성건	소남 윤동규의 학문과 四書學의 의미	양명학. 63	한국양명학회
39	정강길	"人能弘道 非道弘人"에 대한 非본체론적 道 이해 — 과정으로서의 道와 眞理에서 進理로 —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 연구원
40	정일남, 장남희	김종직(金宗直) 시문의 『시경』 운용 및 그 의미	동방한문학. 89	동방한문학회
41	조정은	권근의 『예기천견록』 중 「악기」편 분석 : 체제 재편과 독해 관점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2	지정민	동양고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논어집주대전』을 활용한 『논어』 강의	한국교육사학. 43—3	한국교육사학회
43	지준호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44	최종호	정조와 문답한 '詩經講義' 연구—周南과 召南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45	함영대	가장본 『맹자요의』 검토의 몇 가지 측면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46	함영대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사서답문(四書答問)-맹자(孟子)』 연구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47	함영대	퇴계 이황의 『經書釋義』 의 저변에 대한 일고	남명학연구. 70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48	홍유빈	星湖 李瀷과 白雲 沈大允의 國風說 비교 연구 — 朱熹가 규정한 淫詩를 대상으로 —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 한문학 연구학회
49	황병기	조호익 『역상설(易象說)』의 역학사상과 그 위상	태동고전연구. 4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50	이시연	正祖의 『大學』 解釋 硏究	석사논문	경상대학교
51	이승경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박사논문	대구한의대학교

2. 인물별·주제별 분류

인물별 분류는 각각의 인물을 중심으로 논문을 살펴보고 쉽게 알기 위해 표를 만들었다. 그 결과 1)권근(양촌, 1352~1409) 3편, 2)정조대왕(홍재, 조선 22대 왕, 1752~1800) 5편, 3)이황(퇴계, 1502~1571) 4편, 4)이익(성호, 1681~1763) 3편, 5)정약용(다산, 1762~1836) 13편, 6)정국채(조선후기?~?) 2편, 7)전우(간재, 1841~1922) 2편 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약용의 논문은 13편으로 조선 유학자 중 가장 많고 정조가 그 뒤를 잇고 그 다음은 이황 이다. 그 외 나머지 유학자들이 각각 1편씩 있는 것은 표로 만들지 않고 수록하였다.

1) 권근(양촌, 1352~1409),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정은	권근의 『예기천견록』 중 「악기」편 분석 : 체제 재편과 독해 관점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임재규	권근(權近)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에 나타난 상수학적 방법론 : 오징(吳澄)의 『역찬언(易纂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3	윤상수	『서천견록』을 통해 본 권근의 서경관 : 근엄(謹嚴)과 흠(欽)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정조대왕(조선 22대 왕, 1752~1800), 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종호	정조와 문답한 '詩經講義' 연구—周南과 召南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2	인정현	이산의 간괘(艮卦) 이해	시대와 철학. 3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3	이영준	정조(正祖)의 『사서대전(四書大全)』에 관한 비판적 인식에 대하여 — 『사서집석(四書輯釋)』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4	김서윤	正祖의 『經史講義』를 통해 본 錢時의 「洪範」해석	중국학. 76	대한중국학회
5	이시연	正祖의 『大學』 解釋 硏究	석사논문	경상대학교

3) 이황(퇴계, 1502~1571), 4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퇴계 이황의 『經書釋義』 의 저변에 대한 일고	남명학연구. 70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	서근식	퇴계 이황의 『계몽전의(啓蒙傳疑)』에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의 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3	박종배	퇴계와 율곡의 경서 석의 및 언해의 교육사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31	교육사학회
4	유민정	주희(朱熹)와 이황(李滉)의 수사학적(修辭學的) 『논어(論語)』 해석(解釋)	퇴계학보. 149	퇴계학연구원

4) 이익(성호, 1681~1763),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홍유빈	星湖 李瀷과 白雲 沈大允의 國風說 비교 연구 — 朱熹가 규정한 淫詩를 대상으로 —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 한문학 연구학회
2	서근식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구	민족문화. 58	한국고전번역원
3	노윤숙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국고전연구. 42	한국한문고전학회

5) 윤동규(소남, 1695~1773),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서근식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역학사상 연구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2	전성건	소남 윤동규의 학문과 四書學의 의미	양명학. 63	한국양명학회

6) 정약용(다산, 1762~1836),1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가장본 『맹자요의』 검토의 몇 가지 측면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2	고윤숙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수양론(修養論)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	동양학. 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4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김성재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지적 고찰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6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 악기론의 음악실제상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70	한국국악학회
7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의(含意)	퇴계학논총. 38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8	박종천	가장본家藏本 『춘추고징春秋考徵』과 『민보의民堡議』의 문헌적 검토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 문화재단
9	박찬호	다산의 격치육조설(格致六條說) 연구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신주연	『논어』 '북신(北辰)과 뭇별(衆星)'의 비유를 통해 본 정약용의 유위론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11	윤석호	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법(古法)탐구와의 연동(連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12	지준호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13	이승경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박사논문	대구한의대학교

7) 정국채(조선후기?~?),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수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춘추(春秋)』 연찬과 우암학(尤菴學) 계승	포은학연구. 27	포은학회
2	김종수	향유(鄕儒)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사서경학(四書經學)	동방문화와 사상. 10	동방문화 대학원 대학교 동양학연구소

8) 전우(간재, 1841~1922),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길태은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공자학. 43	한국공자학회
2	이선경	간재 전우의 역학관 시론 = Abstract Yijing thought of Jeon Woo(田愚)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이 외의 1편씩 있는 조선 유학자의 논문은 이의조(경호, ?~?)에 대한 논문이 김종수의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의 학문세계의 대체와 학적 담론」(『인문학연구』35,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정직(석정, 1841~1910)은 김수경의 「석정 이정직의 『시경』론에 대한 해

석학적 접근 —『시경일과(詩經日課)』 삼권(三卷)의 분석을 더하여 」(『대동문화연구』 11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현상벽(관봉, ?~?)은 배제성의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 —『맹자』「생지위성장」과 『중용』 '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이병휴(정산, 1710~1776)는 서근식의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구 」(『민족문화』 58,한국고전번역원), 허목(미수, 1595~1682)은 석승징의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춘추설(春秋說)」 연구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춘추설(春秋說)」 연구」(『동양학』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이상수(오당, 1820~1882)는 신재식의 「峿堂 李象秀의 『論語』 해석과 朱子學 」(『동양한문학연구』 58, 동양한문학회), 장현광(여헌, 1554~1637)은 엄연석의 「여헌 역학사상의 경위설과 분합론의 도덕실천적 의미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회), 유희(서피, ?~?)는 오보라의 「서피(西陂) 유희(柳僖)의 『중용장구보설(中庸章句補說)』 연구 — 구조 분석 특징과 主氣的 학설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이기경(목산, 1756~1819)은 이경훈의 「木山 李基敬 『東儒經說』의 書誌的 考察」(『전북학연구』 3,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윤선도(고산, 1587~1671)는 임귀남의 「고산 윤선도 東詩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47, 한국시가문화학회), 김종직(계온, 1431~1492)은 정일남, 장남희의 「김종직(金宗直) 시문의 『시경』 운용 및 그 의미」(『동방한문학』 89, 동방한문학회), 이유태(초려, 1607~1648)는 함영대의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사서답문(四書答問)—맹자(孟子)』 연구」(『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조호익(지산, 1545~1609) 은 황병기의 「조호익 『역상설(易象說)』의 역학사

상과 그 위상」(『태동고전연구』 4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등이 있다.

주제별 분류에서 각각의 논문을 살펴보자면 1) 『대학』 5편 , 2) 『논어』 7편, 3) 『맹자 4편』, 4) 『중용』 2편, 5) 『역학』 10편, 6) 『시경』 6편, 7) 『서경』 5편, 8) 『춘추』 3편, 9) 『예기』 및 『악기』는 2편, 10)사서 및 경서는 3편, 11) 기타는 5편 등이 있다. 이상을 보면 『역학』과 『논어』가 비교적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복된 경우도 다소 있다.

1) 『대학(大學)』, 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서근식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구	민족문화. 58	한국고전번역원
2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	동양학. 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3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의(含意)	퇴계학논총. 38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4	박찬호	다산의 격치육조설(格致六條說) 연구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이시연	正祖의 『大學』 解釋 硏究	석사논문	경상대학교

2) 『논어(論語)』, 7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유민정	주희(朱熹)와 이황(李滉)의 수사학적(修辭學的) 『논어(論語)』 해석(解釋)	퇴계학보. 149	퇴계학연구원

2	길태은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공자학. 43	한국공자학회
3	지준호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4	신주연	『논어』 '북신(北辰)과 뭇별(衆星)'의 비유를 통해 본 정약용의 유위론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5	신재식	峿堂 李象秀의 『論語』 해석과 朱子學	동양한문학연구. 58	동양한문학회
6	정강길	"人能弘道 非道弘人"에 대한 非본체론적 道 이해 — 과정으로서의 道와 眞理에서 進理로 —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 연구원
7	지정민	동양고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논어집주대전』을 활용한 『논어』 강의	한국교육사학. 43—3	한국교육사학회

3) 『맹자(孟子)』, 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가장본 『맹자요의』 검토의 몇 가지 측면 =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2	함영대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사서답문(四書答問)—맹자(孟子)』 연구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3	배제성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 — 『맹자』 「생지위성장」과 『중용』 '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4	김종수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의 학문세계의 대체와 학적 담론	인천학연구. 35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5	윤석호	『맹자(孟子)』를 척도로 본 조선후기 공전(公田) 담론의 경세학적 층차	학림. 48	연세사학연구회

4) 『중용(中庸)』,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배제성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 — 『맹자』 「생지위성장」과 『중용』 '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2	오보라	서피(西陂) 유희(柳僖)의 『중용장구보설(中庸章句補說)』 연구 — 구조 분석 특징과 主氣的 학설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5) 『역학(易學)』, 10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서근식	퇴계 이황의 『계몽전의(啓蒙傳疑)』에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의 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2	서근식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역학사상 연구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3	인정현	이산의 간괘(艮卦) 이해	시대와 철학. 3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4	임재규	권근(權近)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에 나타난 상수학적 방법론 : 오징(吳澄)의 『역찬언(易纂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5	고윤숙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수양론(修養論)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6	황병기	조호익 『역상설(易象說)』의 역학사상과 그 위상 = The Yi—ology of the Theory of the Images of Changes of Cho Ho—ik	태동고전연구. 4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7	엄연석	여헌 역학사상의 경위설과 분합론의 도덕실천적 의미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학회
8	이선경	간재 전우의 역학관 시론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9	이익환	훈민정음과 가림토문자의 제자制字 및 체계體系에 관한 역易학적 분석 검토	세계환단학회지. 8—1	세계환단학회

10	이승경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박사논문	대구한의대학교

6) 『시경(詩經)』, 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노윤숙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국고전연구. 42	한국한문고전학회
2	홍유빈	星湖 李瀷과 白雲 沈大允의 國風說 비교 연구 — 朱熹가 규정한 淫詩를 대상으로 —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 한문학 연구학회
3	최종호	정조와 문답한 '詩經講義' 연구—周南과 召南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4	김수경	석정 이정직의 『시경』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 『시경일과(詩經日課)』 삼권(三卷)의 분석을 더하여	대동문화연구. 11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5	임귀남	고산 윤선도 東詩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47	한국시가문화학회
	정일남, 장남희	김종직(金宗直) 시문의 『시경』 운용 및 그 의미	동방한문학. 89	동방한문학회

7) 『서경(書經)』, 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상수	『서천견록』을 통해 본 권근의 서경관 : 근엄(謹嚴)과 흠(欽)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김성재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지적 고찰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3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김서윤	正祖의 『經史講義』를 통해 본 錢時의 「洪範」해석	중국학. 76	대한중국학회
5	윤석호	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법(古法)탐구와의 연동(連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8) 『춘추(春秋)』,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수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춘추(春秋)』 연찬과 우암학(尤菴學) 계승	포은학연구. 27	포은학회
2	박종천	가장본家藏本 『춘추고징春秋考徵』과 『민보의民堡議』의 문헌적 검토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 문화재단
3	석승징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춘추설(春秋說)」 연구	동양학.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9) 『예기(禮記)』 및 『악기(樂記)』,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 악기론의 음악실제상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70	한국국악학회
2	조정은	권근의 『예기천견록』 중 「악기」편 분석 : 체제 재편과 독해 관점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0) 사서(四書) 및 경서(經書),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수	향유(鄕儒)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사서경학(四書經學)	동방문화와 사상. 10	동방문화 대학원 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	이영준	정조(正祖)의 『사서대전(四書大全)』에 관한 비판적 인식에 대하여 — 『사서집석(四書輯釋)』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	전성건	소남 윤동규의 학문과 四書學의 의미	양명학. 63	한국양면학회

11) 기타, 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익수	고구려의 경학사상과 인성교육정책	한국의 청소년 문화. 38	한국청소년문화학회
2	박종배	퇴계와 율곡의 경서 석의 및 언해의 교육사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31	교육사학회
3	이경훈	木山 李基敬 『東儒經說』의 書誌的 考察	전북학연구. 3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4	이익환	훈민정음과 가림토문자의 제자制字 및 체계體系에 관한 역易학적 분석 검토	세계환단학회지. 8—1	세계환단학회
5	지정민	동양고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논어집주대전』을 활용한 『논어』 강의	한국교육사학. 43—3	한국교육사학회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2021년도 한국 경학 사상 논문은 모두 52편이다. 그 중 5편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길태은은 그의 논문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에서 이 연구는 『논어』를 통해 본 도의의 의미를 간재 중심으로 고찰한 글이라고 말한다. 이에 「독논어」의 주요 견해를 확인해 보고, 간재 생애에 있어서 도학적 의리정신과 교학적 자정의 의미를 『논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활동했던 간재는 외세의 침략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심각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간재는 「독논어」에서 '학이시습'의 '학'자를 주석함에 '심이성을 배워야 한다.'는 심학성을 바른 학문으로 인식했다. 만일 존심(尊心)으로 해석하면 바로 광자나 방자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심이 도의를 따라야 함을 주장한다. 그렇기에 간재의 문제 의식은 '선악을 실행할 수 있는 심이 어떻게 하면 순선한 본성에 근본 할까'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곧 인간의 본성에 근본 하는 윤리실천 주체의 확립을 통해 심이 도의〔性理〕를 실천하는 것이 선비정신이며 도학정신임을 주장한다. 간재의 교학적 자정의식 속에서 교학과 저술활동은 공자가 제시한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 행동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는 도의 구현방법에 충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간재의 삶과 경학 태도를 보면 존성을 중시한 도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 당시 국가사회의 부조리와 왜양의 침탈은 모두 인간의 심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간재가 망국이

라는 극악의 모순을 목도하며 일제강점의 불합리를 겪어야 했던 시기를 비취어 볼 때 그의 현실 대응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필 수 있다.

2) 고윤숙은 그의 논문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수양론(修養論)」에서 정약용은 역학의 핵심적인 방법론인 역리사법(易理四法)을 통하여, 천인성명(天人性命)의 이치와 더불어 역법(曆法)을 역(易)에서 배제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주희의 성리학적 역학에 대한 비판이며, 정약용 역학의 핵심은 추이(推移), 효변(爻變), 호체(互體)라는 역리와 「설괘(說卦)」의 물상이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원시 유학의 상제(上帝)와 우주 및 인간이 구분되는 천인분리(天人分離)의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정약용이 역사(易詞)를 시대적인 문화의 텍스트로 읽는 것은, 체용일원(體用一源)적 결합의 방식으로 『주역』을 독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점의 괘효()사의 해석이 단순히 괘효의 부호 체계의 내적 규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사태 속에서 실리(實理)와 결부하여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미를 갖는 해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주희의 역학과 수양론의 상호 연관성에서 보자면, 『주역』의 의리란 역리, 즉 법칙적 규범의 기능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내면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믿음과 내면화는 세계의 법칙적 전개에 대한, 즉 개연적 법칙성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희의 역학은 복서(卜筮)에 의지하는 결정론의 단계를 넘어서서 규범과 개연성에 대한 주체의 자발적 동의와 합류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수용을 한 정약용의 미발(未發) 상태는 단지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발동하지 않았을 따름이며, 마음의 사려(思慮)가 작동하는 수양의 영역이 된다. 즉 미발에서는 수

양 주체가 자주의 권형의 자리에서 윤리적 사려와 신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수양의 과정은 천명(天命), 즉 내면의 반성적 목소리인 도심(道心)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정약용은 상제의 시선을 통한 신독(愼獨)과 사려를, 성리학의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에 대한 비판적인 수양론 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3) 배제성은 그의 논문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 —『맹자』「생지위성장」과 『중용』 '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에서 『맹자』「생지위성장」과 『중용』「수장」(특히 '솔성지위도')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규명하였다. 호락논쟁의 대표적 논자로 널리 알려진 한원진과 이간은 사실 호학에 소속된 동문들이며, 그들의 토론이 가진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여러 동문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현상벽은 자주 이간과 나란히 언급되는 중요한 참여자이다. 현상벽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논쟁의 양상이나 쟁점의 함의에 대해 더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인물성동이론의 대표적인 전거로 꼽히는 『맹자』「생지위성장」과 『중용』「수장」(특히 '솔성지위도')에 대한 해석에 주목함으로써 현상벽의 기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상벽은 두 전거에 대한 해석에서 철저히 동론의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지위성장」 해석에서 그는 당초 한원진의 해석에 동조했던 이간보다 빨리 동론의 입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이간의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솔성지위도' 해석에 있어서 현상벽은 이간과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간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한원진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주장을 제시한 반면, 현상벽은 철저히 본 연

지성의 절대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동론의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논쟁에서 현상벽의 역할을 포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논쟁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상호토론의 과정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서근식의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역학사상 연구」는 윤동규의 역학사상에 대해 살펴 본 것이다. 윤동규의 저술은 「행장〔邵南先生尹公行狀〕」과 「제문〔祭邵南尹丈東奎文〕」을 지은 안정복(安鼎福)의 말처럼 후대에 전할 만한 것은 없고 '지의(志疑)' 몇 권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안정복은 「행장」에서 이익이 윤동규가 『태현경(太玄經)』을 잘 알고 있다고 칭찬한 점을 언급하였다. 『태현경』은 윤동규의 역학(易學)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부분이다.성호학파에서 윤동규의 위상은 이익이나 초창기 제자들이 언급한 부분에서 그가 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에 신후담(愼後聃)으로부터 비롯된 '공희로(公喜怒) 논쟁'에서 젊은 제자들이 윤동규를 따르기 보다는 신후담의 견해에 동조했던 이병휴(李秉休)의 입장을 따름으로써 성호학파에서 점점 잊히게 되었다. 윤동규가 「계사지의(繫辭志疑)」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소옹(邵雍)의 가일배법(加一倍法)으로 『주역(周易)』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하는 것이다. 윤동규는 「계사전(繫辭傳)」이 『주역』의 범례와 같으므로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사전」을 열심히 읽고, 그로부터 『주역』의 이치가 건괘(乾卦)·곤괘(坤卦)에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윤동규의 서법(筮法)에 대한 견해는 이익을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익은 「시괘고(蓍卦攷)」와 같이 주희(朱熹)의 서법(筮法)에 의문을 가지고 많은 기록을 남긴 반면 윤동

규는 '자득(自得)'의 정도가 적어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짧은 글 몇 편만을 남겼다. 『태현경』은 한나라 때 만들어진 서적이다. 윤동규가 『태현경』을 연구한 본래 목적은 소옹과 주희를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확장하여 『주역』의 주석서로 만들었다면 좋았겠지만 소옹과 주희를 비판하는 언급에만 그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 윤동규의 역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으므로 그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5) 함영대는 그의 논문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사서답문(四書答問)—맹자(孟子)』 연구 = 」에서 초려 이유태(1607~1684)는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등과 깊은 교유관계를 맺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예학과 경학은 물론 경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유배기에 완성한 『庭訓』, 『四書答問』 등의 저작은 해당 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율곡학을 계승한 당대의 학자로 평가되어 왔다. 그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관직을 수행한 적도 있으나 그 관력이 화려하지는 않았다. 그나마 1680년 이후로는 예송논쟁으로 인해 송시열과 사이가 멀어져 영변으로 귀양가기도 했다. 초려는 사계 김장생을 스승으로 섬겼다. 그러므로 사계가 스승으로 섬겼던 율곡의 경전해석을 계승한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었으며, 『사서답문』은 이러한 학문적 맥락 속에서 저술된 것이다. 이 책이 집필될 당시 초려는 갑인년 예송에 휘말려 유배생활 중이었는데 그 당시 이미 칠십을 넘고 있었다. 손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서답문—맹자』는 사계 김장생 이후로 조선의 맹자해석이 전환되어 가는 의미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저작이다. 초려는 대전본을 활용하여 소주까지 비판

적으로 독실하게 읽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치경제론 분야의 관심사와 문헌의 활용정도, 諺解에 대한 관심, 주석의 수준과 한계점 등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초려에 이르러 대전본은 더 한층 충실하게 분석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유배지라는 저작의 환경으로 인해 문헌 활용의 범위는 한정적이었고, 손자에게 주는 답문의 형식이라는 저작의 성격은 본격적인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다소 주저하게 만든다. 또 초려 자신의 한정적인 관심 분야도 맹자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해석의 시야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사서답문—맹자』는 소주의 분석과 활용이라는 신선한 시도로서의 의미 외에 좀 더 본격적인 학술서로서의 평가는 조금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전본 소주의 충실한 독서물로서의 이 저작의 상징적인 의미를 다소 아쉽게 만든다.

4. 평가와 전망

이상 살펴본 결과 2021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경학 관련 논문은 총 52편이다. 그 중 학위논문은 2편(석사 1편, 박사 1편)이고 나머지 이랍 학술지 논문이 50편이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논문은 조선 후기 유학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외의 논문도 포함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논문은 1)권근(양촌, 1352~1409) 3편, 2)정조대왕(조선 22대 왕, 1752~1800) 5편, 3)이황(퇴계, 1502~1571) 4편, 4)이익(성호, 1681~1763) 3편, 5)정약용(다산, 1762~1836) 13편, 6)정국채(조선후기?~?) 2편, 7)전우(간재, 1841~1922) 2편 등이 었고 나머지는 유학자들은 각각 1편씩 있음을 살펴보고 조사하였다. 전년도의 경우는 박세당(서계, 1629~1703), 신후담(하빈, 1702~1761), 이진상(한주, 1818~1886), 전우(간재, 1841~1922), 곽종석(면우, 1846~1919), 이병헌(진암, 1870~1940)이 각각 2편씩의 논문이 이었다. 각 1편의 논문에서 다룬 논문은 총 14편이 있었으며 시대순으로 나열해보자면 이황(퇴계, 1501~1570), 최명길(지천, 1586~1647), 윤휴(백호, 1617~1680), 김만중(서포, 1637~1692), 정제두(하곡, 1649~1736), 이만부(식산, 1664~1732), 이익(성호, 1681~1763), 김원행(미호, 1702~1772), 류정원(심산, 1703~1761), 안정복(순암, 1712~1791), 홍대용(담헌, 1731~1783), 정조대왕(홍재, 1752~1800), 정약용(다산, 1762~1836), 설태희(1875~1940) 등이 있었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논문은 1)『대학』 5편, 2)『논어』는 7편, 3)『맹자』는 4편, 4) 『중용』은 2편, 5) 『역학』은 10편, 6) 『시경』은 6편, 7) 『서경』은 5편, 8) 『춘추』는 3편, 9) 『예기』, 『악기』는 2편, 10)사서 및 경서는 3편, 11) 기타는 5편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상을 살펴보자면 『역학』과 『논어』가 비교적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복된 경우도 있다. 전년도인 2020년에는 『중용』은 8편, 『주역』은 6편, 『대학』 5편, 『춘추』는 4편, 『맹자』는 3편, 『논어』는 1편, 『시경』은 1편으로, 2021년과 비교하자면 확실한 차이가 보인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5편을 선별하여 소개하여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1) 길태은은의 논문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2) 고윤숙의 논문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수양론(修養論) 」, 3)배제성의 논문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 — 『맹자』 「생지위성장」과 『중용』 '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 」, 4)서근식의 논문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역학사상 연구 」, 5)함영대의 논문「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사서답문(四書答問)—맹자(孟子)』 연구 = 」 등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2020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경학 관련 논문은 총 30편이었다. 그 중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9편, 한국 유학자와 중국 유학자를 비교를 비교한 논문이 1편 있었다. 2021년은 총 52편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논문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존에 연

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길 희망한다. 한국 경학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수준 높은 한국 경학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와 한국 학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